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느낀다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성정은 자신의 행위를
청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안다’는 것을
정제합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되면 판단과 비판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제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있다.

신 윤 식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대는 사람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알리오 마는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니
결국 배워진 것들이다.

강단에서는
팔을 안으로 굽게 하려는
세뇌의 말로 범벅이고
일신의 행복을 꿈꾸는 자들은
행여 신의 저주를 받을까 굽실거리니
결국 신앙 지배자들의 손에 붙들려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자행되는 극렬한 모순들
십자가는 여기저기 높이 솟구쳐 있는데
그 아래서는 복과 구원을 미끼로
온갖 착취가 난무하니
정말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보니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2.20
발행호수 제19권 8호

베 드로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을 보상 받을 자격이 있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는 그의 고백을 근거로 한다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한 분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단지 자신이 한 일의 가치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가치에 염두를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을 한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하다는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적 계산이 천국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으로 비유합니다. 집 주인이 천국으로 비유된다면 집 주인의 행동이나 말 하나 하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은 먼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삼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유대인이 시간이 우리와 여섯 시간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면 삼시는 9시에 해당이 됩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은 육시와 구시, 즉 열두시와 오후 세시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에 해당되는 십일시에도 나가보니 여

주일오전설교
마 20:1-16

천국과 품꾼

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주인의 이 같은 조치는 일반적인 주인의 행보와는 전혀 다릅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품꾼이 더 필요했다면 삼시에 나가 추가적으로 품꾼을 구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시와 구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더군다나 십일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을 불렀다는 것은 품꾼을 부른 이유가 포도원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을 맡기는 것이 주인의 관심이라면 구시와 십일시에도 품꾼을 부른 것은 일반적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 즉 오후 여섯시까지이기 때문에 구시에 들어온 사람은 3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십일시에 들어온 사람은 겨우 1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부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비의 마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꾼들에게 그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양식을 구할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품꾼들은 언제 부름을 받았든 그들 모두는 주인이 불러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준 덕분에 가족들의 하루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름 받은 품꾼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은 십일시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겨우 한 시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 일당을 다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됩니다. 그 품꾼의 놀람과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어떠했을 거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다른 품꾼들은 자신들은 일을 더 많이 했으니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품꾼에게 지급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품꾼들은 주인에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

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12절)고 원망을 합니다.

이 같은 원망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열 두 시간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열 두 시간 일한 자신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질서입니다. 일한 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열 두시간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일찍 와서 일하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서로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회사는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일한 만큼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원망을 하는 그 중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네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13-15절)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애당초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고 품꾼은 약속한 일당을 받았습니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던 그것은 주인의 돈을 주인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꾼이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이 자신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의 수고는 다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차이는 있지만 주인은 노동의 차이를 보고 삯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주인이 노동의 차이를 보고 삯을 계산했다면 한 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십이분의 일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먼저 온 사람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삯을 받음으로 먼저 와서 많이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기분

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적용된 것이 천국의 상이 다르다는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의 상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많이 일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 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계산 법이야말로 사람들의 속성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천국의 상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일한 만큼 차별적 대우를 받음을 말함으로써 교인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좀 더 많은 수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품꾼에게 동일한 삯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는 데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부름 받아 일하기보다는 나중에 부름 받으려고 할 수 있고,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천국의 상이 동일하다’는 말을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려고 하겠느냐는 염려가 앞서게 될 것이고, 때문에 ‘천국의 상이 동일하다’는 말을 탐탁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품삯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염려하는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니다. 따라서 품꾼들은 삯을 자신이 노동한 것에 대한 보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 날은 모든 식구가 굶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불러주신 자비로 여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왔던 늦게 왔던 모두가 동일하게 주인의 자비를 누리는 것으로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16절)는 말로 내리십니다. 이 말씀은 19:30절의 말씀과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출석한 순서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묻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라는 새로운 천국 질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수고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

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의 계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법은 먼저 된 자를 나중 되게 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는 나중 된 자를 먼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교회에 10년 출석한 사람이 20년 출석한 사람을 추월하여 먼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출석한 사람이 늦게 출석한 사람에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먼저와 나중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주인에 대해 원망한 품꾼들의 잘못은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을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긴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보다 적은 노동을 한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삯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한 데나리온은 주인의 자비입니다. 자비로 부름을 받았고 자비에 의해서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입니다. 애당초 노동을 조건으로 부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품꾼의 관계입니다.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노동을 조건으로 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고, 자비와 은혜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 그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비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 청년의 잘못은 영생을 선에 대한 자신의 실천의 대가로 여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자비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도 대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일한 것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동일합니다. 일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차별되지 않는 것이 신자의 관계이며 천국입니다.

성령에 대한

불신앙

(성령 6강 2.6일 설교)

신 자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자가 생각하는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일하심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

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성령이 일하심에 대한 다른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자 사도는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가고자 힘쓴다고 해도 결국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일하는 도구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은 사도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사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길은 막혔던 것이고, 결국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정당한 일이며, 정당한 일기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의 발길을 막으시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성령이 원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

다. 맞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정당한 행동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관참고 양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여기고 감행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명목 아래 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어받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부름 받은 도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면, 그리고 성령이 뜻하는 곳으로 사도를 가게 하셨다면 사도와 하나님의 관계에는 성령이 개입해 계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점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지나 열심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더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사도의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냐로 가게 하셨다면 그것은 아시아에서 보다 더 큰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11절부터 보면 사도가 마케도냐에 가서 있었던 일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수일을 유하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는 귀신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를 고쳐

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주인은 사도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사도를 붙들여 관원에게 끌고 가 옥에 갇히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바울이 도망친 것으로 여기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간수를 만류하고 사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를 떠납니다.

이것을 보면 마케도냐에 엄청난 일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사도의 길을 막으시면서 마케도냐로 가게 하신 후 한 일은 루디아와 간수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린 항상 크고 위대한 일에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많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있고 성령은 신자를 것처럼 큰일을 하도록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별 것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간수 역시 맨 밑바닥의 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이름있는 그럴듯한 사람을 전도하여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별 것 아닌 존재로 여기는 그 두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사도 중의 사도인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현재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이 도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 성령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 것이

고,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세운 뜻을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막히는 것이 없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길이 하나님 뜻에 일치되어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도구로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복음을 위해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이 잘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에 의해 주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인생에 대해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되어진 현재의 것이 복음을 위해 재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도구가 되어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신 성령의 일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성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립되어 있는 모든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에 의해 세워진 기준이라면 결국 인간이 알게 된 선악을 구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난은 좋지 않은 것이고 부자는 좋은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낮아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무시 받을 존재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시각에서 가난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기준이 신자에게 있다면 신자는 자신을 남들처럼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못가진 자신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과연 신자로써 바른 것일까요?

세상의 것이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시각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무엇이 진심으로 초라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닿은 그것들은 거룩해지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율법에는 거룩한 제물을 쓴 것에 뭔가가 닿았다고 해서 그것에 거룩해진다는 규례가 없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것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국이나 떡을 만지면 그것들을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부정해진다고 답합니다.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 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유다 백성과 그 나라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다는 이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생활 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인데 부정한 사람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70년을 살았으니 유다 또한 부정해진 존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질문에서 거룩한 고기를 쓴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는다고 해도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유다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에 바벨론으로 간 것 때문에 바벨론이 거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부정한 이방나라에 함께 했으니

수요일설교

학 2:10-23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3강 2.9일 설교)

그들이 부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편을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다가 건축하는 성전은 이전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라함은 건물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부정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건물만 바라본다면 외형적인 차별로 인한 초라함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하지를 못했고, 그들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고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그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때는 일하고 수고한 것만큼 소득을 얻지 못했음을 16,17절에서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지 않았습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쌓으면서도 그들은 만족할만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가 지으라고 한 성전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복이 되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고 말합니다. 나중 영광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으키실 장래 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초라한 성전에 담겨 있는 장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산에서 흔한 나무를 가져다가 지은 것과 같은 초라한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초라함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죄로 인해 부정한 존재고 불품없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신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저것이 내 모습이다’ ‘내가 바로 죄로 인해

부정해진 초라한 존재다’ 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화려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되는 화려함이나 초라함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아닙니다. 부정한 존재가 모두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모두가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초라함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라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가 예수님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중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이전 영광, 즉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어집니다. 이 나중 영광을 더 큰 영광으로 볼 수 있는 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2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라 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종으로 택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초라한 성전에 담겨 있는 장래의 영광을 백성들이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룹바벨은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에서 인간이 왜 초라할 수밖에 없는가를 쉬지 않고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복으로 인도하는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정말 죽음까지도 초라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유다 백성이 초라한 성전에서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왜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라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모든 부정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곧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영광에 참여한 백성들입니다. 이 복은 오늘 이전, 즉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우리의 초라함을 생각하면 더 큰 영광과 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5장
교 독 : 47(시105)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40장
성 경 : 마 20:1-16
말 씀 : 천국과 품꾼(12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03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2장
기 도 : 박영선 집사
찬 송 : 400장
성 경 : 갈 5:22-23
말 씀 : 성령의 열매(성령 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8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2강)

■ 교회소식 ■

1. 지난주 권사투표에서 한옥섭 집사님이 선출 되셨습니다.
2. 황경영 집사님이 뼈에 금이 가는 상해로 인해 참조은병원(송헌동)에 입원중입니다.



다움주 기도

오전 이성희 장로 오후 이애림 집사

감성적 감동보다는 깨달음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들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감동은 그때 그뿐이다. 아무리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그 감동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경우는 희박하다. 일상생활은 여전히 화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게 하는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여러 가지의 일에 맞물려 반복하며 돌고 돌 것이다.

사람들은 감동 받기를 좋아한다. 서점에는 감동을 주는 책들로 넘쳐나고 TV드라마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책을 만들어 내는 출판사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곧 최고의 상품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감동이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감동이 되는 맛있는 글, 맛있는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들도 이런 업자의 행보에 발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설교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설교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청중을 확실한 자기편으로 붙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중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조립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내용만이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 음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지적이고 안정적인 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설교 발성법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청중들을 설교에 집중시키기 위해 중간 중간 ‘아멘’ ‘할렐루야’ 라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기술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중들은 그렇게 잘 조립된 설교를 소비하고 잠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반복적인 한주를 생활하다가 또 다시 설교의 맛을 느끼고 소비하기 위해 예배당을 찾는다. 목사들 중에는 이처럼 설교를 잘 각색하고 다듬어서 청중들을 감동하게 하는데 탁월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나 또 다른 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 앞서 말한 대로 감동은 그때 그뿐이라는 것이다.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생각이 조금만 깊은 사람이라면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설교나 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는 것이 인간임을 잘 안다.

중요한 것은 감성적 자극, 감동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통한 앎, 앎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평강과 안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을 주기 위해 깨달아 알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깨달음은 누구라도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차별도 없이 주어진다. 학벌과도 상관없이 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도 얻고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좋더라.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한 종교 정해서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교회 섬기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 좋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여길 때 합당한 말이다.

영혼의 문제는 교회 생활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에 해당된 사람이라면 깨달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깨달음을 위해 이렇게 자판을 두드린다.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글을 잘 쓰고 싶은 욕망을 감지하면서....